

기억 토의 과제
2022.10.14
B946074 김민재

손톱

나는 10 일에 한번꼴은 목욕탕을 갈 정도로 목욕탕을 가는 것을 좋아한다. 이걸 내가 어릴 때 목욕탕에 함께 갔던 이들과의 추억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명절에 태안에 내려가면, 이튿날 해도 뜨기 전, 차가운 시골 새벽 공기를 마시며, 우리 가족은 낡은 그랜저를 타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간다. 한시간이 지났을까 나를 깨우는 소리를 듣고, 할아버지 무릎 위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 목욕가방을 챙긴다. 그리고 빠르게 계단을 두 칸 씩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는 할아버지를 기다린다. 그리고 남탕에 들어간다. 할아버지는 입구 쪽 구두 수선 아저씨와 아는 사이 인듯 친근하게 인사를 나눈다. 130cm 의 작은 키로 바라보는 목욕탕은 워터파크나 다름이 없다. 처음 보는 또래 친구와 같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냉탕에 다이빙을 하기도 한다.

재미있게 놀다 보면 나를 부르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아, 또 그 시간이 왔구나!” 두려움이 엄습한다. 나는 잊지 못할 고통을 선사 받는다. 주름이 진 손은 나의 머리에 오이비누를 사정없이 비벼 거품을 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정도 거품이 날 즈음 투박하고 날카로운 손톱이 나의 머리를 사정없이 비빈다. 두피가 찢어질 듯 아프고 손톱이 지나간 자리는 파스를 바른 듯 화끈거린다. 2 분정도가 지났을 까 할아버지는 머리를 헹궈 주신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신다. 하지만 어림도 없지, 다시 머리위에 샴푸가 떨어지는 느낌이 나고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다시 불이 붙는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다시 참아본다.

목욕을 끝나고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께 나는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세계 머리를 감겨 주시냐” 하며 투덜거린다. 그리고 다시는 할아버지에게 머리를 내어주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다. 어머니는 웃으신다.

아버지의 차를 타고 목욕탕을 가던 나는 어느 덧 직접 운전을 해서 동네 친구와 목욕탕을 가는 나이가 되었다. 반신욕을 즐기고 나와, 샤워기로 물을 맞고 있다가 나는 오이비누에

눈이 간다. 그리고 그가 없는 이 세상, 나는 그 고통을 추억하며, 눈을 감고 투박하게
손톱으로 머리를 감아본다.

그땐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본다.

나도 먼 미래에 누군가가 추억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